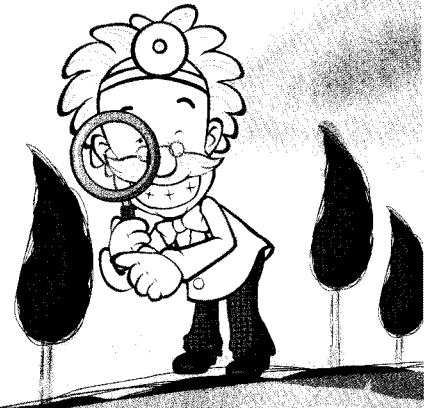


조경수에 발생하는 병해

- 하얀 송진이 흘러내리는 편백 · 화백의 가지마름병 -



편백·화백나무의 가지마름병은 주로 작은 가지가 피해를 받으며, 병든 부위의 윗부분은 적갈색으로 변하면서 말라 죽는다. 측백나무과에서는 아주 중요한 병해로 알려져 있으며, 1987년 우리나라에서 처음 보고되었고, 오래전 편백나무가 도입 되었을 때 병원균이 같이 들어온 것으로 추정된다. 노간주나무가 전염원이 되기도 하며, 줄기에 병이 발생할 경우 목재 조직에 송진이 침적되어 목재의 상품가치를 크게 저하시킨다.



이상현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과)
shlee4@forest.go.kr

■ 피해 및 병징

편백과 화백에 발생하는 가지마름병은 집단 재배되고 있는 묘포장이나 이식묘의 10년생 이하 어린 유묘에 많이 발생되며, 병이 발생되면 가지가 말라 죽거나 휘어져 기형목이 되기 쉽다. 또한 수피가 세로로 찢어져 송진이 많이 흘러내리며, 심할 경우 송진이 말라 지저분하게 보이는데 이것이 가지마름병의 뚜렷한 병징이다. 병든 부분에는 흑색의 작은 돌기(분생포자퇴)가 형성되고 다습하면 분생포자가 분출한다.



노간주나무의 가지마름병 피해



고사된 가지와 가지마름병 병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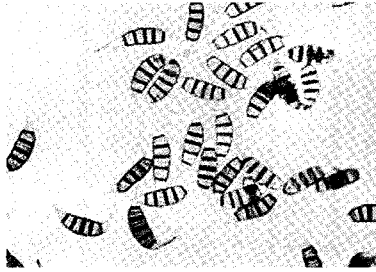
감염된 가지의 송진 누출

■ 병원균 : *Seiridium unicorne* (Cooke et Ellis) Sutton

분생포자되는 병든 부위의 수피 밑에 형성되고, 검은색의 긴 타원형, 또는 원형으로 크기는 $285\sim 815\times 165\mu\text{m}$ 이다. 분생포자는 무색, 방추형 모양이며, 5격막의 6세포이고 크기는 $21\sim 30\times 7.5\sim 10\mu\text{m}$ 이다. 분생포자의 중앙에 있는 4세포는 암갈색을 띠며, 윗부분의 부속사는 길이가 $6\sim 17\mu\text{m}$ 로 휘어져 있다.



가지마름병의 분생포자퇴



병원균의 분생포자

■ 방제 방법

가지마름병에 감염된 병든 가지는 잘라서 묻거나 태워야 하며, 묘포에서는 생육기에 보르도액이나 만코제브 수화제(mancozeb 75%)를 2주 간격으로 2회 정도 살포해야 한다. 또한 가지마름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어린 묘목에는 베노밀 수화제(benomyl 50%)를 살포하여 예방하며, 전염원인 노간주나무를 제거해야 한다.